

광주비엔날레는 지금 '열공' 중

'국제 큐레이터 코스' 국내외 27명 선발 육성 시민 강좌·도슨트 양성 현대미술 아카데미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새로운 예술 담론 모색과 미래 전시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재단 관계자들이 일선 대학에서 도슨트를 양성하는 강사로 나서는 등 현대미술의 아카데미로 변신하고 있다.

재단은 최근 국제적인 전시기획 전문가를 키우는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의 참가자를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국내외에서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재단이나 위원회가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4일부터 9월20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총 28개국에서 모두 114명이 지원해 국내 6명, 해외 21명 등 모두 27명이 선발됐다. 강의는 수강생들의 활동 경험과 성과물 발표, 토론,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미술 전문가 초청 강의, 국내 주요 전시와 스튜디오와 연구소 방문, 비엔날레 행사 참가, 자체 연구

등으로 짜여졌다. 또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 준비 과정에도 참가하는 등 현장 실습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강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단 이용우 상임부이사장과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은병수 총감독, 제8회 광주비엔날레(2010년 9월3일~11월7일)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또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출신인 김선정(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씨와 2008 브뤼셀비엔날레 바바라 반데린덴(Barbara Vanderlinden) 총감독도 강사로 참여해 현대미술의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강의한다.

재단은 또 한양대 미디어문화연구소와 함께 지난 6월1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재단 회의실에서 '2009 시민인문강좌'를 열고 있다. 오는 14일 종강하는 이번 강좌에는 6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고전예술과 현대예술 ▲독일 표현주의 ▲아방가르드 예술 ▲퍼포먼스, 개념예술 ▲추상표현주의 등을 주제로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배우고 있다.

이 밖에도 재단은 광주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의 예술 커리큘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서강정보대학의 평



이용우 부이사장 은병수 총감독 지오니 총감독 김선정 교수



지난달 3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2009 시민인문강좌'에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생교육원 강의에 재단의 조인호 전시부장, 김은영 정책연구실장이 강사로 참여해 문화 서포터즈 양성, 도슨트 양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하반기에도 이들은 이 대학에서 동명의 강좌를 개설한다.

김은영 실장은 "현대 미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비엔날레를 치르는 광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엄마야 누나야 지식강변살자”

동요 '엄마야 누나야' 작곡 배경 장소 나주 남평 지식강변서 문화예술 난장



나주 지식강변에 세워진 작곡가 안성현 노래비.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 뜰에는 반짝이는 금도래빛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작곡 배경 장소로 알려진 나주시 남평읍 지식강변에서 한바탕 문화·예술 난장이 펼쳐진다. 나주 예총(회장 김진호)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지식강 솔밭유원지에서 '여름으로 떠나는 신나는 예술여행-문화광굴 삼 향기 사이로'라는 주제로 문학강연·연극공연 등 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한다.

나주 예총 7~9일 문학 강연·연극 공연 '안성현 음악제' 열어

나주 지식강변은 작곡가 고(故) 안성현 선생(1920~2006)이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곡을 붙인 배경 장소로 알려진 곳으로 몇 해전까지만 해도 인근지역(광주, 화순, 담양, 영암)의 여름 휴양지로 주목받았던 유원지이다. 나주 예총 7개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중요시 한 만큼 연극과 구성에 자연친화적 배치를 고려했다. 먼저 지식강변에서는 문인협회 주관으로 '희망을 묻다! 글 속에서'라는 주제의 문학행사가 펼쳐진다. 한승원, 문순태, 문병관 등 지역 대표 문인들이 함께 하는 독자와의 대화시간에 이어 시인 전숙, 동화작가 정대연, 김노금씨가 참여하는 문학이야기가 마련된다. 행사기간 나주 출신 문인과 초대 작가들의 시화 작품을 볼 수 있는 시화전도 준비됐다. 다채로운 공연행사도 열린다. 출발 전제를 무대로

활용해 지식강 설화를 배경으로 스토리텔링한 연극 '남평현감 남시오'(연출 차영호)가 8, 9일 양일간 공연되며 '콘서트 오·감·자·극' '천년의 소리! 숲 향기 따라'로 나눠 클래식 공연, 통기타, 국악, 고전무용, 판소리 등 배우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들이 이어진다.

8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안성현 음악제가 열린다.

국민 작곡가 안성현을 기리는 안성현 음악제에는 이화춘비오케스트라(지휘자 변옥)가 문진해, 김은희씨 등 성악가와 함께 선생의 국민동요와 주옥같은 아름다운 곡들을 선사한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식강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운동 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학작품 백일장 및 낭송대회, 사생활기대회, 사진 촬영 및 모델 선발대회도 열린다.

김진호 회장은 "국민적 동요를 탄생시켰던 지식강변을 예술문화의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문화축제를 마련했다"며 "아름다운 강변 솔밭을 주무대로 펼쳐지는 축제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안성현 선생을 기리는 노래비를 솔밭유원지에 건립했다. 문의 061-332-684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주=최승기기자 srchoi@kwangju.co.kr

한여름밤 뮤지컬 갈라 디너쇼 'love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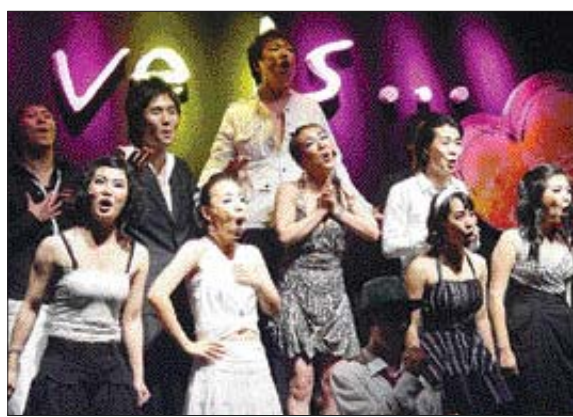
8일까지 금호화순리조트

한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뮤지컬 갈라 디너쇼'가 펼쳐진다. <사진>

광주연극협회 소속 극단 터와 극단 진달래피네 연극인들이 함께 기획한 뮤지컬 갈라쇼 'love is...'가 오는 8일(매일 오후 7시)까지 금호화순리조트 무대에서 공연된다.

첫 만남, 이상형, 꿈속의 사랑, 실연의 아픔 등 사랑에 관한 짙직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love is...'는 국내·외 유명 뮤지컬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하정, 안정열, 남궁민, 김소아, 이광석 등이 출연한다. 이와함께 마술쇼, 필리핀 가수 초청공연도 곁들여진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정순씨씨는 "뮤지컬 공연과 마술쇼, 만찬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며 "연극 한편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공연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에도 좋다"고 말했다.



공연관람 입장료는 1인 1만원이며 식사를 함께할 경우 1인 2만2천원이다. 오는 14일, 15일에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061-372-80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통음식강좌 수강생 모집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9월부터 개강하는 16주 과정 '2009 하반기 전통음식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떡·한과 초급, 향토음식, 폐백·이바지, 떡·한과 고급과정으로 나눠 운영하며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강사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예식장 이예섭·최영자씨를 비롯해 남도의례전통음식보존연구회 회원이 맡는다. 전화, 인터넷(<http://namdofoodmuseum.go.kr>) 접수 모두 가능하며 수강료는 폐백·이바지 과정 12만원, 그의 과정은 각 10만원씩이다. 문의 062-575-888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술시장은 아직 '한겨울'

올 경매 낙찰총액 지난해의 절반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낙찰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미술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2009 상반기 미술시장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낙찰총액은 359억4천30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5억1천585만원보다 46% 감소했다.

서울옥션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353억9천860만원이던 낙찰총액이 올해 상반기에는 208억5천195만원으로 41% 감소했으며 K옥션의 낙찰총액도 217억8천520만원에서 93억1천536만원으로 57% 줄어 들었다. <연합뉴스>

'8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2009년 8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위를 이사하는 법'(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발표했다.

제호기 시인의 '손가락이 뜨겁다'(문화와 지성사 펴냄)를 비롯해, '중국 소수민족 신화기행'(안티쿠스 펴냄),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생각의나무 펴냄),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위를 이사하는 법'(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등이 선정되었다.

또 조너선 색스의 '사회의 재창조'(말밭빛 펴냄), '침대 밑 그림 여행'(창비 펴냄), '신비주의의 위대한 선각자들'(사문난적 펴냄) 등도 포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김재규경찰학원
김재규경찰학원
합격 심화는 계속됩니다!
2009년 8월 4일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2009년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강 Start! 8월 10일
1인당 200만원 지원
중영 IT 직업전문학교
223-0050

원어민 1:1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2009 교육부 선정 TOPIK 영어 교육용 책
중우유나눔재단 외국인 동아리 후원
마수 재강 EXPO 외국인 관광객 동아리 후원
070-7433-0594

중은위지(약원가톨릭) 임대
임대 2층 3층 6층
면적 110평 110평 80평
중 앙 B/D
222-4560
011-666-0229